

넥슨, 루소 형제 제작사에 5억 달러 투자  
영화·TV분야 지적재산권 글로벌 확장  
AGBO 지분 38% 확보... "다양한 플랫폼·시장 아우를 것"

**NEXON** 넥슨이 마블의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을 연출한 루소 형제가 설립한 제작사에 최대 5억 달러(6000억 원)를 투자한다. 넥슨은 영화감독 루소 형제와 프로듀서 마이크 라로 카가 설립한 AGBO스튜디오에 4억 달러(48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영화 및 TV 분야에서 자체·신규 지적재산권(IP)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닉 반 다이크 수석 부사장이 이끄는 넥슨 필름&텔레비전 조직이 주도했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 1억 달러(1200억 원)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넥슨은 이번 투자로 AGBO의 지분을 38%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인 AGBO 경영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단일투자자가 된다. 또 넥슨 필름&텔레비전의 닉 반 다이크, 팀 코너스 수석 부사장이 AGBO 이사회에 합류한다.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는 "넥슨은 수십 년 동안 대형 IP를 개발하고 전 세계 시장에 서비스해 인기를 유지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지녔다"며 "AGBO와 넥슨은 다양한 플랫폼과 시장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전 세계의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핵심 비전을 공유할 것이다"고 말했다.

AGBO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인 루소 형제는 "넥슨과 AGBO의 파트너십은 프랜차이즈 영화와 게임의 융합을 전 세계적 영향권으로 넓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프리미엄 제품 혜택UP" 정관장 설 프로모션

16일까지 '얼리버드' 행사...포인트 2배 적립도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2월 3일까지 '올 설엔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세요'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19종의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해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흥천옹, 흥이장군, 아이페이스, 천녹, 황진단 등 인기 제품에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16일까지 '얼리버드 행사'를 연다. 정관장 제품을 10만 원 이상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정관장 포인트를 2배 적립해준다.

MZ세대를 위한 '2022년, 힘내라 20대' 캠페인도 마련했다. 정관장 멤버스에 신규 가입한 20대 고객 전원에게 정관장 포인트 1만점을 제공하고, 정관장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정관장몰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이벤트 응모를 통해 각각 2022명에게 정관장 활기력을 준다.

이홍규 KGC인삼공사 마케팅실장은 "건강 트렌드의 확산으로 설 명절 선물 홍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했다.

고대의료원, KLPGA 골퍼 이다연 홍보대사 위촉



고려대의료원이 KLPGA 프로골퍼 이다연(메디힐)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다연은 KLPGA 통산 6승을 거둔 스타골퍼로 현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의 의료원 홍보대사로서 주요 기념행사와 각종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이다연은 "모교 의료원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영광스럽다. 고려대의료원과 함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필드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늘 최고를 지향하는 이 프로의 열정이 생명존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는 우리 의료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늘 최고를 지향하는 이 프로의 열정이 생명존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는 우리 의료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중소기업 ombudsman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발표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기업 불편·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ombudsman이 심의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비용을 줄인다. 부처와 지자체 위원회의 규제 애로 1822건을 일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29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들, 위원회 이행 부담으로 ombudsman, 위원회 실태·현황 조사해 규제이행 비용 줄이는 개선안 마련 심의대상 현실화 등 5295억 절감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 목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ombudsman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합리한 제도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이행이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은 부담을 토로해 왔다. 또 그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가 미진해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의 투자·성장을 현장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ombudsman이 심의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비용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주봉 중소기업 ombudsman. 사진제공 | 중소기업부

이에 중소기업 ombudsman은 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실태·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형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그 결과, 규제애로 개선 과제 수는 총 1822개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은 연간 약 529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대상 줄이고, 절차도 합리화

이번 대책은 먼저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 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유사·

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다음으로 심의참여 및 위원회 규제 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 예상액은 399억 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 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 원이다.

권철승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ombudsman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기업 활동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멸공이 폭력·선동이라고?" 정용진 '멸공' 게시물 삭제됐다 복구

정 부회장이 '#멸공' 달린 글 삭제돼 인스타 '시스템 오류'...복구 조치 지난해 11월부터 공산당 논란 계속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폭력 및 선동의 이유로 삭제 조치됐으나, 시스템 오류로 확인돼 하루 만에 복구됐다.

정 부회장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는 멘트와 함께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고, 인스타그램 측은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인스타그램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갑자기 삭제됐다. 이게 왜 폭력 선동이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멘트와 함께 인스타그램 측의 삭제 공지를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것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의 '멸공'이라는 단어 때문



숙취해소제 이미지와 인스타그램 측의 삭제 공지.

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측이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하고, 삭제됐던 게시물이 6일 오후 다시 노출되면서 일종의



사진출처 | 정용진 인스타그램 캡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정 부회장의 공산당 논란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당시 정 부회장

은 오른손에 빨간 카드지갑을, 왼손에 빨간색 로고가 새겨진 잭슨피자 상자를 든 사진을 올렸다. 이어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마시길 바랍니다"는 글과 함께 '피자는 잭슨피자', '난 공산당이 싫어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잭슨피자는 이태원에 위치한 피자 맛집으로, 이마트 자체브랜드(PB) 피코크와 협업 상품을 내놓고 있다. 피코크 잭슨피자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가 공산당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이후 정 부회장의 발언이 반여 성향의 커뮤니티에 퍼졌고, 신세계그룹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인들이 신세계 불매운동을 벌여도 상관없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민교육현장의 한 구절을 올리며 "난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난 공산당(공산당)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 싫다"고 했다. 또 남들이 뭐라 하든 물러서지 않겠다는 '노 백(No Back)'을 의미하는 '노빠꾸'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정정욱 기자

노인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일상복귀 위한 재활치료도 중요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겨울에 노인들은 가벼운 낙상만으로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

고관절 골절은 골밀도가 떨어지는 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회복기간이 길어지고, 지체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을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수행하는 모든 치료를 말한다. 재활치료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중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라면 외과적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일상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재활치료는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체적, 감각적, 지적, 심리적, 사회적 수준을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수행하는 모든 치료를 말한다. 재활치료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운동치료, 도수치료, 통증치료 등을 주로 시행한다.

운동치료는 중추신경계 손상 회복 또는 관절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한 치료로 보바스, 보이다, 고유수용성신경근 촉진법 등의 기법을 활용해 환자가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도수 치료는 치료사가 관절, 근육 부분을 손으로 풀어주어 변형이 일어난 근골격계

의 문제를 바로잡아 통증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통증치료는 근골격계 손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다.

노인 고관절 재활치료는 정교한 맞춤형 의치료가 이뤄져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산 세마그린요양병원 박중우 원장

